



가톨릭마산

연중 제27주일
2024년 10월 6일
제2638호



아이들의 기도 © 사진 / 양병주 분도

주일 진레

- 제 1 독 서 창세 2,18-24
- 화 답 송 ◎ 주님은 한평생 모든 날에 복을 내리시리라.
- 제 2 독 서 히브 2,9-11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느님이 우리 안에 머무르시고,
 그분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리라. ◎
- 복 음 마르 10,2-16 <또는 10,2-12>
- 영 성 체 송 당신을 바라는 이에게, 당신을 찾는 영혼에게 주님은 좋으신 분.



김태호 스테파노 신부

현지사목(오스트리아 그라츠)

친근하고 솔직한 어린이처럼

오늘 복음은 남녀 사이의 이혼이라는 주제를 다루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어린이라는 주제로 이어집니다. 얼핏 보면 이 두 주제는 매우 이질적으로 보이지만 어린이라는 주제는 부부들이 지향해야 할 관계를 가리키는 이정표가 됩니다. 창세기의 말씀에 의하면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결합합니다(창세 2,24 참조). 결합한다(προσκολλάω: 프로스콜라오)는 표현을 원문에 가깝게 직역하면 남자와 여자가 혼인을 통해 '찰싹 달라붙는' 관계를 이룬다는 뜻이 됩니다. 즉, 부부 사이에 깊은 신뢰와 친근함이 형성된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런 사심 없이 친근하게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어린이들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아무나 믿고 따라가지 말라고 교육합니다. 또한 아이들은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아기들과 아이들은 다른 사람 앞에서 옷을 벗고 있을 때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는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후부터 그들이 죄를 범하기 전까지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들은 서로 벌거벗은 채로 함께 살았음에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를 짓고 각자의 영혼에, 그리고 서로의 영혼에 상처를 내면서부터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몸 뿐만 아니라 각자의 영혼에 생긴 상처도 가렸습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에게조차 자신의 상처를 가리고 스스로가 포장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처를 포함한 자신의 참모습을 배우자에게 솔직하게 내어놓지 못하면 부부는 서로 달라붙는 친근한 관계를 형성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갓난아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벌거벗은 모습마저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교회를 당신의 신부로, 우리를 당신의 아내로 삼으셨습니다(에페 5,24-25; 2코린 11,2-3 참조). 자신의 상처를 누군가에게 보여준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매우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과 배우자에게 자신의 약점마저도 솔직하게 내어 보일 때 새로운 신뢰와 친근함이 자라나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나 자신의 참모습을 마주하고 그것을 하느님과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솔직하게 내어 보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 우리가
하느님과 배우자에게
자신의 약점마저도
솔직하게 내어 보일 때
새로운 신뢰와 친근함이
자라나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것입니다.”



별

민창홍 요한 시인(시, 글, 사진)/가톨릭문인회



풀과 나무가 무성히 자라는 곳
한양성 남쪽 새나무터
석양의 빛으로 붉게 물들어 간다

무한한 사랑 서로 나누고
진리의 말씀 따르는 성(城) 안쪽의 희망
숨어서 기도하며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중국에서 마카오에서 오시는 성령의 참뜻
차례로 찾아와 목마름 풀어주시니
조선의 심장에 흐르는 강물이어라

긴박한 민고로 하나둘씩 조여드는 강변
훈련하던 군졸은 어디 가고 부드러운 모래밭
절명의 소리처럼 전철(電鐵)은 지나가는가

형장이 되어버린 강가, 아파트가 막아서
참수의 핏빛 물에 떠서 영동한 이슬 되니
별이 된 아홉 분의 순교 사제여

도련선 날렵한 치맛자락, 목조탑 같은 성당
고층 건물보다 높이 떠서 굽어보시니
서울 하늘은 별들이 빛나고 있다

새남터 순교성지

새남터 순교성지는 한국천주교회 역사상 순교한 성직자 열네 명 가운데 열한 명이 순교한 곳으로 이 가운데 여덟 명과 교회 지도자급 평신도 세 명이 성인 반열에 오른 한국의 대표적인 순교성지이다. 이곳은 신유박해 때에 주문모 신부, 기해박해 때에 앙베르 주교와 모방 신부, 샤스탕 신부, 병오박해에는 한국 최초의 사제인 김대건 신부와 '기해일기'를 작성한 현석문, 병인박해에는 베르뇌 주교, 브르트니에르, 볼리외, 도리, 푸르티에, 프티니콜라 신부가 순교하였다. 새남터가 다른 성지와 다른 점은 사제들의 순교지라는 것이며, 한국 최초의 신부인 김대건 성인이 군문효수형을 당한 바로 그 장소라는 의미에서 한국천주교회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다.

새남터 기념성당은 한국천주교회 창립 200주년 기념 해인 1984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1987년에 완공되었다. 성당의 전체적인 외형은 한복의 도련선을 본떠 겹치마를 두른 형태를 구현하였다. 내부는 대성당 제대 십자가 아래 비둘기와 양이 있는 감실이 있고 제대 양쪽 앞에는 새남터에서 순교하신 9위의 유해가 모셔져 있다. 제단의 103위 성인 벽화는 예수님을 조선시대 임금의 모습으로 표현했고 성모자 상도 한복을 입고 있다.



마산교구 전사前史 재수록

마산교구 전사 40

진주본당 설립(4)

타케(Taquet 嚴宅基) 신부의 진주 본당은 1년 만에 철수한다. 1899년 6월 3일 그의 부임으로 시작되었다가 1900년 6월 그가 진주를 떠나자 없던 일이 되어 버렸다. 타케 신부는 본당을 진주에서 마산으로 옮겼다고 단순하게 생각했을 것이다. 실제 그는 마산에 가서도 판공 때면 진주를 방문했다. 여전히 진주는 그의 관할 구역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진주 본당 1년은 마산 본당의 역사가 되지 못했다. 훗날 완월동 본당이 마산 본당을 이어 받지만 전사(前史)로 보기엔 무리였다. 완월동 본당과 연관성이 없기 때문이다. 진주엔 1926년 옥봉동 본당이 설립된다. 진주 본당 1년은 이곳의 전사로 남아야 할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공중에 뜬 기록이 될 수 있다.

타케 신부가 마산으로 간 뒤 성당으로 사용했던 집은 어떻게 되었을까? 진주 교우들은 본당 신부가 마산으로 떠나자 너무 섭섭해 했다. 그래서 뮈텔(Mutel 閔德孝) 주교에게 진주와 마산에 각각 신부 한 분씩 보내줄 것을 간절히 건의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성직자가 부족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교우들은 훗날을 기약하며 비라실長在洞에 집 한 채를 마련한다. 집을 구입한 자금은 성당으로 사용했던 집을 매각한 돈의 일부였다. 타케 신부도 성당이었던 집은 매각했고 두 번째 집을 구입할 때 빚을 졌기에 대부분 빚 갚는데 사용했다는 기록을 남겼다.

이렇게 해서 진주 본당에 대한 흔적은 사라져 버렸다. 서부 경남 중심본당으로 만들어 선교의 베이스캠프로 활용하려 했던 본당이였다. 그러나 타케 신부는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결정적인 이유는 진주성 안쪽에 교우들이 전혀 없었다는 데 있다. 주일엔 공소교우들이 모였지만 평소엔 사람들이 오지 않았다. 일 년 내내 평일 미사를 드렸지만 교우는 자신의 복사와 하인 1명 이웃 노인 한 사람이 전부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결정을 내리자 타케 신부는 마산 본당 신설에 진력했다. 진주 본당의 역할을 하루 빨리 마산 본당에서 하고 싶었던 것이다. 초여름에 마산으로 떠났던 그는 그해 겨울 성탄 판공 때 다시 진주 공소를 방문했다. 그는 본당을 옮긴 것이 아니라 진주에서 마산으로 사제관을 옮겨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지금의 진주 시내에 본당이 서는 것은 훨씬 후대의 일이다. 초석을 놓은 분은 문산 본당 3대 주임이었던 김양홍(金洋洪 스테파노 1874-1945) 신부다. 그는 진주 소재지에 진출하고자 교우들이 있는지 탐문하다 1919년 10여 명의 교우들을 찾게 된다. 그들 중에 진주 토박이는 없었고 모두 하동 남해 쪽에서 이주해온 신자들이었다. 김 신부는 즉시 모임장소로 사용할 집 한 채를 마련하고 책임자로 남해 창선昌善 사람 이낙중(李樂鐘 스테파노)을 임명했다. 훗날 그는 진주본당 초대회장이 된다.

당시 마련한 집은 지금의 옥봉동 성당 인근이었다고 한다. 김 신부는 이러한 사실을 당시 대구교구장 드망즈 주교에게 알리고 문산 본당 소속 공소로 등록했다. 이것이 진주읍 옥봉동 공소의 출발이다. 한편 진주의 중요성을 감안한 교구장 드망즈(Demange 安世華) 주교는 공소 건물을 지을 수 있게 120평의 땅을 확보해 주었다. 현재 성당 건물이 서있는 장소다.

구입자금은 미국의 한 신자가 드망즈 주교에게 보낸 것이라고 한다. 이후 공소건물이 완공되자 드망즈 주교는 직접 방문하여 축성식을 가졌고 1926년 옥봉동 공소를 본당으로 승격시켰다. 초대 주임은 정수길(鄭泳吉 요셉 1897-1978) 신부였다. 설립당시 진주성당이었지만 1965년 칠암동 본당이 신설되자 1967년 옥봉동 성당으로 개칭되었다.

※ 마산교구 전사 원고는 이번 호로 마칩니다. 그동안 집필해 주신 신은근 신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 개의 천당

문정임 켄마 시인/ 가톨릭문인회

2025년은 나의 모교가 설립 100주년이 되는 해라고 동창회에서 그 역사를 책으로 묶어내자고 한다. 특별한 감흥이 없었는데 막상 책을 펴내려고 이것저것 자료를 찾다가 뜻밖의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 이른바 진주 정신의 모태가 되는 커다란 사건의 인과를 엿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임진란에 관계한 남명의 제자들과 논개의 결행, 진주농민항쟁, 형평운동 등 굵직한 역사적 사건들의 의미를...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는 살 수 없다하여 독립 운동을 하고, 민족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이민족과의 전투에 목숨을 걸었고, 정치의 부패와 관료의 부당한 수탈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기에 온몸을 던져 항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이에 천년 동안 남강과 함께 흘러온 유구한 역사의 면면을 새롭게 하려면 교육이 최우선이라 지역 주민들이 모금을 하여 민립고 등여학교를 세운 거였다. 놀라웠다. 우리가 명문이라고 자찬하는 이 학교의 입학 조건은 일정액의 월사금을 내야 하고 소학교 졸업 학력을 갖추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고 신분 또한 양가집 규수여야 했다. 진주 특징의 하나였을까 기생집 여아는 입학할 불허한다는 권고가 덧붙여 있었다. 물론 백정의 자녀도 차별에 시달려야 했다. 진주정신이라 함은 위에 열거한 모든 부당함과 억울함과 분노의 응집이 낳은 결과였다. 이런 역사의 와중에 가장 끈질기고 세속적으로 비참한 사건들은 따로 있었으니 천주교 박해였다.

영세 초기 나는 복 받기를 바랐고 가족 안에서 무탈하게 평범한 주부로 살고자 했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가톨릭교리를 잘 이해했다기보다 그 신앙 선조들이 본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궁금증이 커 갔다. 그들이라고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 아깝지 않았을까? 그러나 박해, 순교사를 보면 물론 배교자도 많지만 성인 복자 가정자들은 너무나 의연하더라는 것이다. 나약해 빠진 오늘날 우리들과의 궁극의 차이는 무엇일까? 샤를르 달레의 『한국천주교회사』에 적혀있다.*

“내포지방 홍주 황일광 시몬은 백정의 집안에 태어났는데, 조선에서는 이 계급을 어찌나 멸시를 하고 천대를 하는지 거기 속하는 사람들은 종들보다도 더 낮게 다뤄지는 지경이다. 그들은 인류 밖에 있는 품위를 잃은 존재로 다뤄진다. 동네에서 떨어져 따로 살아야 하며 아무하고도 일상생활의 교제를 할 수 없다”

천주교의 평등사상은 그들에게 사회의 복음이었다. 그는 자기에게는 두 개의 천당이 있는데, 하나는 이 세상에서 인간대접을 받았으므로 천당이고, 하나는 죽어서 가는 천당이라고 하였다. 전쟁도 잠시 멈추었고 국민소득도 높고 백정 차별도 없고 천주교 신자라고 목숨을 바치지 않아도 되는 오늘날 한국사회. 국민 절반이 율분 상태라고 한다. 하루 평균 자살자 수가 377명에 이르는 이 경쟁 사회에 내가 이 사회를 지옥으로 만드는 데 전연 무관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아님 마음으로라도 우리는 과연 천당을 살고 있는가?

*박해시대 숨겨진 이야기들 2/순교의 맥/2016/서양자수녀 p130에서 재인용



기억할 선종 사제
 김해동(요한 크리소스토모) 신부
 1975년 10월 6일

교구장 서리 동정

재무평의회

일시: 10월 8일(화) 10:00
 장소: 마산교구청

축복식 및 견진성사

일시: 10월 13일(주일) 10:30
 장소: 장등성당

교구/본당

성경 교육봉사자 월례모임

일시: 10월 8일(화) 14:00
 장소: 마산교구청

복음화분과위원 연수

일시: 10월 12일(토) 14:00
 장소: 마산교구청

예비신학교 여학생 예비성소 모임

일시: 10월 13일(주일) 13:30
 장소: 마산교구청

위원회/기관/단체

여성협의회 4분기 상임위원회

일시: 10월 8일(화) 11:00
 장소: 마산교구청

평형 본당회장 및 여성부회장, 교구단체장 하반기 연수

일시: 10월 12일(토) 14:00
 장소: 마산교구청

파티마 성모님 발현 107주년 기념 및 한반도 평화통일 기원미사

일시: 10월 12일(토) 10:00~16:00
 14:00 미사

장소: 천진암 성지(수원교구)
 미사: 이성호 주교, 이한택 주교, 사제단
 문의: 010-2621-6034 파티마세계사도직마산교구

제18기 성마리아 어머니학교

일시: 2024. 10. 26.(토) ~ 27.(주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대상: 어머니이면 누구나
 신청비: 금 120,000원(일십이만원)
 계좌: 경남 207-0135-2973-03
 신청: 10월 16일(수)까지 팩스 전송
 문의: 사목국 가정사목부 055-249-7023

기타

예수마음기도 하루 무료 피정

일시: 10월 12일(토), 11월 9일(토)
 10:00~15:00(14:00 미사) 매월 둘째주
 (토) 무료피정 예정
 문의: 부산 가톨릭센터 051-462-1870
 강사: 권민자 수녀 신청: 010-4837-7509

제주 성이시돌 자연순례

이시돌 목장내 성지에서 십과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연중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일행, 소규모 단체
 자연순례: 10월 23일~25일, 11월 7일~9일, 11월 11일~13일, 11월 21일~23일, 12월 1일~3일, 12월 6일~8일, 12월 14일~16일
 추자도포함: 11월 16일~19일, 11월 25일~28일, 4월 5일~8일
 연말연시(한라산눈꽃산행): 12월 29일~1월 1일
 접수: 02-773-1455 / 064-796-4182

제주면형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제주성지·역사·생태순례와
 성무일도,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순례
 생태순례: 10월 28일~30일, 12월 7일~9일, 12월 13일~15일
 성지순례(추자도포함): 11월 18일~21일, 11월 24일~29일
 연말연시피정(한라산포함): 12월 30일~1월 2일
 접수: 02-773-1463/064-756-6009

단기 선교아카데미 교육생 모집(온라인)

일시: 11.4~11.14(월~목) 오후 7시~9시

대상: 해외선교 및 선교에 관심이 있는 평신도, 수도자, 성직자
 진행: 실시간 온라인 교육 비용: 10만 원
 문의: 02-3673-2528 한국외방선교회 선교센터

[부산음악교육원]성가대지휘 전문과과정 개설

대상: 본당 성가대 지휘에 관심있는 사람
 기간: 연간 24주간 3년과정(토 9시~13시)
 입학시험: 2025년 2월 15일(토)
 등록금: 1년 290만원
 문의: 음악원 051-519-0475

제3회 혼인성소 발견하기

일시: 12월 15일(일) 10:30~17:00
 장소: 부산가정성당(초량동)
 대상: 혼인 희망하는 짝 없는 가톨릭신자로 34~46세(1990~1978년생) 미혼자; 제2회 혼인성소 발견하기(2023년) 참가자 배제
 접수: 선착순 남녀 각 30명
 문의: 부산교구 가정사목국 051-441-3501

성형영성의집 별관 '쉼자리' 이용 안내

단체: 최대 13명 1일 숙박 20만원
 개인피정: 최소 2인 이상 1일 숙박 3만
 식사 개별 취사
 연락처: 010-8025-9759

가톨릭여성회관 개관 제48주년 민들레축제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일시: 2024년 10월 25일(금) 11:00~ 22:00
 장소: 가톨릭여성회관 내
 ● 1부 우리들의 축제(한울학교, 노인대학)
 ● 2부 회관 48주년 기념행사, 레스피로 중창단
 ● 3부 <회관 48> 토크콘서트(가수 이경민)
 ● 민들레포차, 민들레 찻집운영

성령기도회	일시	장소	주제	강사	미사 주제	문의
교구	10월 7일(월) 19:00	남성동성당	하느님 안에서 변화된 삶	이태호 루카 (삼성산 찬양 봉사자)	박혁호 미카엘 신부	010-5247-9900
청년	매주 (수) 19:30	가톨릭 문화원 4층	성령기도회	19:30 미사 봉헌/ 20:00 기도회		010-6667-7809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팔용동)
 구자롱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10-6299-1137

무상견적 & 친절상담 **흥익철거**
촌집·스레트지붕 전문철거
공장·주책·삼가 등
 이상현 토마스 머퀴니스
010-3913-6202
대성의전 경남장묘컨설팅
 산소 이장 무연고 처리
 수목장 평장묘 터 알선
010-4848-9944
 마산회원구 회성남 18길 2, 1층(학성동)
 김중운(클레멘스)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마산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0-3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가톨릭 트러블
산티아고 순례길 42일
루르드/파티마 성지순례 일정
 산티아고 도보순례 800Km
 25년 3/30 599만원(+2,100유로)
 070-4086-0207 catravel.co.kr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02.2281.9070/www.ctour.org
 1/3~1/14 튀르키예, 그리스 495만원
 1/7~1/13 스페인 남부 375만원
 1/13~1/24 피정 성모발현지 475만원
 1/13~1/20 멕시코 과달루페 570만원

가톨릭 우리농 직매장
유기농산물·유기농식품 전문점
 창원시 중동중앙로 47 어반브리스 상가 1층
055-266-7010



(Mariatrost), 비엔나 대교구 주교좌 대성당(Stefansdom) 등을 방문하였고 친교와 영성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며 마산교구와 교구민들을 위해 기도했다.

재유럽 마산교구 신부 모임

2024년 9월 9일(월)부터 9월 13일(금)까지 오스트리아에서 재유럽 마산교구 사제모임이 있었다. 이번 모임에는 이중기 신부(도미니코, 베를린 한인성당), 이재혁 신부(안드레아, 함부르크 한인성당), 김정훈 신부(미카엘, 그라츠 현지사목), 이재호 신부(베드로, 프랑스 유학), 김태호 신부(스테파노, 그라츠 현지사목)가 참석했다. 사제들은 김정훈 미카엘 신부가 사목 중인 그라펜도르프(Grafendorf) 성당에서 지내며 오스트리아의 대표적인 성모순례지 마리아첼(Mariazell)과 마리아트로스트



리 본당에서 청년Pr이 탄생하게 된 것에 감사 한다는 말씀과 함께 청년들의 의지와 성모님의 간절한 바램,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탄생한 청년Pr이 더욱 굳건해지고 변성해 질 수 있도록 성인단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명서동본당 바다의 별 청년Pr. 창단

9월 12일(목) 명서동본당(주임: 구성진 올리아노 신부) 대강당에서 청년 레지오마리아 “바다의 별Pr.”이 주임신부를 비롯한 레지아단장 등 많은 분들의 축하를 받으며 거룩하고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성인단장(윤희성 요셉)을 비롯한 7명의 청년 단원으로 성모님의 충실한 군인이 되고자 다짐을 하였고, 주임신부는 축하인사에서 요즘 청년들이 줄어들어 청년회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



장재동본당 순결하신 어머니Pr. 2,000차 주회

장재동본당(주임: 김승태 마티아 신부) 순결하신 어머니 Pr.(단장: 조현숙 루시아)은 9월 25일(수) 오전 10시 강당에서 2,000차 기념 주회를 가졌다. “시간이 다 되어 가니까 떨립니다”라는 단장의 인사말로 시작한 2,000차 주회는 소박한 모습이고 하나된 모습이라서 하느님 보시기에 참 좋더라 하실 것 같았다.

주임신부도 기념주회를 함께하며 축하의 뜻을 전했으며, 단장의 멋진 춤과 소리(창)는 공연장을 방불케 할 정도의 열기로 친교와 단합을 이루는 시간을 가졌다.



비천함=낮음 / 낮추심=겸손

황봉철 베드로 신부/ 성사전담

레지오 단원들이 매일 같이 기도하는 “까페나”에 “마리아의 노래”(루카 1,46-55)인 “마니피캣”이 있습니다. 그 가사 가운데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라는 말씀에서 “그분”은 하느님을, “당신 종”은 성모 마리아를 가리키는 것인데, 그러면 성모님께서 비천(卑賤)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전에는 “지위나 신분이 낮고 천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에서 성모 마리아의 지위나 신분에 대해 낮고 천하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을까요? 목수인 요셉과 약혼하였고 혼전에 임신하신 것이 밝혀져 요셉이 파혼하려고 한 애기와 아기를 낳은 후 요셉과 함께 이집트로 피난 간 애기, 그리고 그 후 헤로데가 죽자 귀국하여 갈릴래아 나자렛으로 자리를 잡아 살았기에 예수님을 “나자렛 예수”라고 불렀다는 정도의 얘기밖에 우리는 모릅니다.

“비천하다”라는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명사로는(ταπεινοσις-타페이노시스) 4번, “비천함” “굴욕” 등으로, 형용사로는(ταπεινος-타페이노스) 8번, “겸손” “비천한” 등으로, 동사로는(ταπεινω-타페이노오) 11번 나오는데, 주로 “낮추다” 수동태인 “낮아지다”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 세 단어의 쓰임새가 일관되지 않고 다양해서 우리의 이해를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는 그분의 “비천함”(명사로 쓰임)을 언급하고(루카 1,48), **예수님께 대해서는 “겸손하심”**(형용사로 쓰임) 분으로(마태 11,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리고 동사로 사용된 필립 2,8에서는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새 번역인 “성경”안에서 살펴 보았지만, 이제 다른 번역본을 살펴 보겠습니다.

- 루카 1,48의 명사인 타페이노시스(ταπεινοσις)의 우리말 번역은(가톨릭, 개신교) 대부분 “비천함”으로, 그런데 영어나 독어 번역에서는 “낮추심” “낮은 처지”로, 일어와 중국번역에서도 주로 신분의 비천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 마태 11,29의 형용사인 타페이노스(ταπεινος)는 우리말 번역, 영어나 독어 번역 그리고 일어나 중국어 번역들은 모두 “겸손하다”로 하고 있습니다.
- 필립 2,8의 동사인 타페이노오(ταπεινω)는 모두(우리말, 영어, 독어, 일어, 중국어) “낮추다”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자신을 낮춘다”는 것이 겸손을 의미한다면, 이 겸손은 순종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종합해 보겠습니다.

루카 1,48의 마리아의 “타페이노시스”는 성모님의 당시의 신분이나 지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앞의 이야기인 예수님의 탄생 예고와(루카 1,26-38) 연결하여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자, 마리아는 처녀로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냐고 반문하였다. 그러자 그 천사는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알려주었고, 마리아는 이내 순종하는 말투로 대답합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루카 1,38) 이는 자신의 주장이나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천사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부연하면 자신을 낮추는 자세이니 겸손한 자세이고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다는(필립 2,8 참조) 자세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루카 1,48의 “타페이노시스”는 **신분의 낮음**을 뜻하는 “비천함”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처신**이나 **태도**를 드러내는 “**낮추심**”으로, 즉 순종의 자세로 알아들어야 할 것입니다.